

“한국시리즈에서 나를 빛내겠다”

미운 오리새끼로 거듭난 KIA 버나디나 KS 출사표

초반 12경기 타율 0.205 허덕
퇴출 위기 딛고 한국 야구 적용
118득점·32도루 리그 1·2위
27홈런은 나지완과 팀 내 1위
외인 첫 20·20·사이클링 히트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날개를 펴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로저 버나디나다.

지난봄만 해도 버나디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삼성과의 2017시즌 개막 3연전에서 버나디나는 단 2개의 안타를 신고하는데 그쳤지만 6타석에서 삼진으로 허무하게 물러났다. 4월 14일 넥센전까지 세 경기 연속 무안타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초반 12경기 성적은 44타수 9안타, 타율 0.205에 불과했다.

KIA가 지난 3년을 함께 한 ‘호자 외국인 선수’ 브렛 파울 대신해 야심 차게 선택한 새 카드로 기대에는 한참 부족했던 시작이었다. 성급한 이들은 버나디나의 퇴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험겨운 봄날이었지만 버나디나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가을을 맞았다.

139경기 출전한 버나디나는 0.320(557타수 178안타)의 타율로 KBO리그 첫 시즌의 결승선을 끊었다. 10개 구단 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118차례 홈을 밟으면서 롯데 손아섭(113득점)을 따돌리고 득점 1위에 랭크됐다. 버나디나는 32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도루 부문 리그 2위이자 팀 내 1위를 기록하는 등 발 실력도 발휘했다.

파워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27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겨 나지완과 KIA의 홈런왕이 됐다. 전체 공동 9위다.

정교함과 힘, 스피드를 고루 갖춘 그는 타이거즈 역사에도 이름을 남겼다.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20(홈런)-20(도루)’과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바로 버나디나다. 역대 팀 통산 4300도루도 버나디나가 채웠다.

빅 리그에서 ‘사크’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소문난 그의 수비 실력 역시 특별했다. 버나디나는 공·수에서 KIA의 우승을 이끌며 봄날의 기억을 지웠다.

버나디나는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즌을 보냈다. 야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어디에서든 야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KBO리그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이곳이 낯설기도 했지만 지금은 집처럼 느껴진다”고 타국에서의 첫 시즌을 돌아봤다.

놀라운 성적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준 버나디나. 반대로 그도 새로운 리그에서 많은 것을 얻으며 기쁨의 한 해를 보냈다.

버나디나는 “(KBO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훌륭한 리그다. 각 팀이 적응하고 변화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화를 주면 상대도 거기에 대응해서 변화를 주고 발전한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한다”며 “팬들도 대단했다. 어디를 가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고 언급했다.

버나디나는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또 다른 목표 한국시리즈 우승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버나디나는 “시즌 막판에 두산과 1위 경쟁을 했다. 두산은 이미 2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이라서 우리에게서는 일종의 시험 무대였던 것 같다. 우리 팀이 중요한 시험과 도전을 잘 마쳤다”며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다. 미국에서 포스트 시즌까지는 가봤지만 월드시리즈는 경험하지 못했다. 나를 빛낼 기회라고 생각한다. 팬들도 정말 대단할 것이다. 깃발을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국시리즈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끈 버나디나가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을 꿈꾸고 있다. 사진은 버나디나가 홈런을 친 뒤 특유의 헬멧 세러모니를 하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유소연·박성현·톰프슨 동반 플레이

<세계랭킹 1~3위>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오늘 개막

여자골프 세계 랭킹 1~3위 유소연(27), 박성현(24), 렉시 톰프슨(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벌인다.

LPGA 투어가 발표한 1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유소연과 박성현, 톰프슨은 대회 첫날인 12월 오전 10시 35분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이 대회는 12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6316야드)에서 열린다.

유소연과 박성현, 톰프슨은 세계 랭킹 1위부터 3위까지 늘어난 것은 물론 올해 LPGA 투어 주요 부문 선두 경쟁을 벌

이고 있는 선수들이다.

상금 부문에서는 190만 달러의 박성현이 1위, 178만 달러의 유소연이 2위, 166만 달러의 톰프슨이 3위다. 올해의 선수 부문은 유소연(150점), 톰프슨(147점), 박성현(130점) 순이다. 또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톰프슨이 69.015타로 1위, 박성현이 69.092타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3위는 69.448타의 전인지(23)다.

유소연과 박성현, 톰프슨 조는 대회 첫날부터 갤러리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전인지는 유소연-박성현-톰프슨 바로 앞 조에서 리디아 고(뉴질랜드), 최혜진(18)과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강정호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출전 준비 마쳐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30)가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출전 준비를 마쳤다.

소속팀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주선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아길라스 시바에나스에 입단한 강정호는 14일 산토도밍고 키스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디그레스 델 리세이와 리그 공식 개막전에 3루수로 선발 출전할 예정이다.

리노 리베라 감독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빅리그 경험이 많은 강정호에게 3루를 맡길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개막을 앞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는 6개 팀이 12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50경기씩 치른다.

2015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확실

한 주전으로 자리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3번째 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강정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 강정호는 한국에 머물며 개인 훈련을 했다.

시즌 내내 3루수 공백을 채우지 못한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에게 피칭 머신을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전감각 회복이 절실한 강정호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며 내년 시즌 빅리그에 복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피츠버그 구단과 미국 현지 언론은 강정호가 내년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2018시즌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승균 KCC 감독, 이상민 삼성 감독, 이상범 동부 감독, 문경은 SK 감독, 유재학 모비스 감독, 유도훈 전주랜더 감독, 추일승 오리온 감독, 김승기 KGC 감독, 현주엽 LG 감독, 조동현 KT 감독. /연합뉴스

“프로농구 우승후보는 KCC·SK”

정관장 프로농구 KBL 2017-2018

‘부상만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다.

KCC에 ‘부상만 없다면’이라는 단서가 따라붙는 이유는 바로 지난 시즌 전 태풍, 하승진, 예밋의 출부상으로 최하 위까지 밀려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SK 역시 ‘초호화 군단’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김선형, 최준용, 변기훈, 최부경, 김민수, 테리코 화이트 등에 ‘해결사’ 애런 헤인즈의 영입으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헤인즈는 2012-2013시즌부터 3년간 SK에서 뛰면서 팀을 리그 정상권으로 올려놓은 경험이 있다.

KCC 추승균 감독과 SK 문경은 감독은 ‘꼭 이기고 싶은 팀을 지목해달라’는 주문에 서로 상대 팀을 적어내 붙들 뒤는 경쟁을 예고했다.

나머지 두 표를 받은 팀은 인천 전자랜드를 영입했고 전태풍, 하승진, 안드레 에밋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선수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여기에 송교창, 이현민, 찰스 로드 등이 가세해

/연합뉴스